

청와대 정책소식



청와대 정책소식



청와대 정책소식 2009년 2월 23일 창간

펴낸이 김두우 메시지 기획관
엮은이 이종우 메시지 기획비서관
대통령실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하려면
출처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청와대 정책소식〉은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비매품

대통령실

성숙한 세계국가, 더 큰 대한민국의 꿈이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입니다.

최근 우리는 대한민국의 내년도 G20 정상회의 유치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로써 향후 세계경제질서를 만드는 과정에 의장국 대한민국의 역할을 전 세계가 주목할 것입니다.

‘따라가는 대한민국’에서 ‘이끄는 대한민국’으로 변모하는 ‘성숙한 세계국가’의 꿈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설득력 있고 창의적인 해법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선부른 자만심에 빠져도 안 되겠지만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움츠린 자세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땀과 노력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듯이 이제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사고와 생활방식도 더욱 성숙하여 세계가 본받을 법질서와 시민의식을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외교안보팀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상생·공영의 남북한 관계 정착, 새로운 세계금융질서 형성 과정에서 강화된 우리의 위상 공고화, 동아시아 및 세계에서의 우리의 외교안보 역량 강화 등 우리 앞에 놓인 주요 과제들을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며 더 큰 대한민국의 비전을 함께 그려가길 기대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
김성환

목 차

I .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6
1. 내년도 G20 정상회의 개최 배경	
2. G20 정상회의는 어떤 회의체?	
3. 한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 의미	
4. 세계 속의 한국의 역할	
 II . 유엔에서의 주도적 역할	11
1.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와 조정 역할	
2.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한 녹색성장 전략 제시	
 III . 북핵문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제안	13
1.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의 내용과 배경	
2.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제의가 갖는 전략적 의미	
3. 향후 추진 계획	

I.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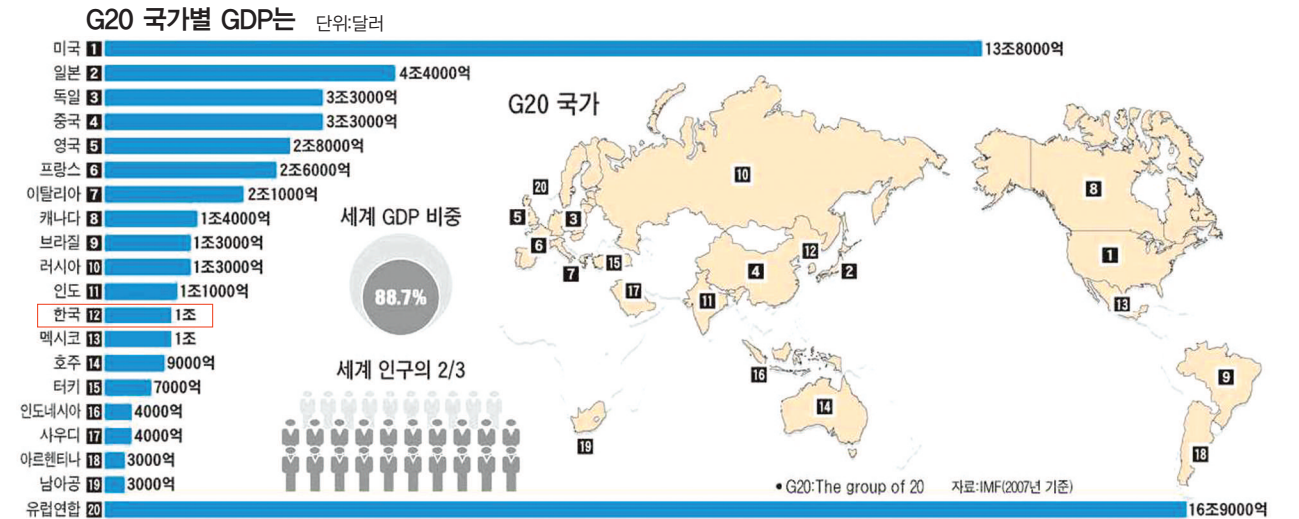
1. 내년도 G20 정상회의 개최 배경

- 9.24-25일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사실상 참가국들의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내년도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 내년 6월에는 캐나다가 G8과 G20을 동시에 개최하고, 11월에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개최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들은 회의 이전부터 한국이 2010년 개최지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기타 참가국 대다수가 한국 개최를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2. G20 정상회의는 어떤 회의체?

글로벌 거버넌스의 최상위 포럼 G20 정상회의

- G20 회원국의 경제규모는 세계경제의 85%에 달하여, G20 정상회의는 사실상 세계경제 질서를 결정하는 포럼이 되었습니다.
- G20은 G7/G8과 달리, 선진국과 거대 개도국, 신흥경제국을 포괄하는 범 글로벌 경제 협의체입니다.
 - G20은 1999년 20개 회원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개최하는 회의로 시작
 - 회원국 : G7(미, 일, 영, 불, 이, 독, 캐), 러시아,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터키, 호주, EU, 남아공, 사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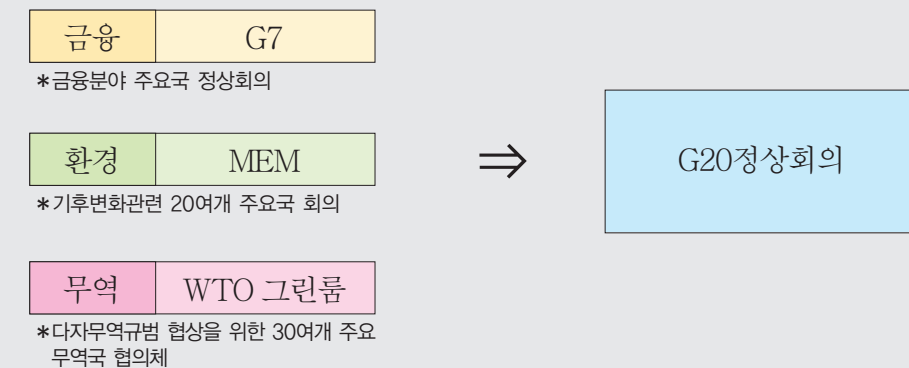


- 그러나, 작년 10월 촉발된 사상최대의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G20국 및 여타 영향력 있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수장이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가 출범
 - 참여국 : G20 회원국, 국제기구(UN, WTO, IMF,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 OECD) 외 의장국이 초청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

✓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란?

- 세계의 주요한 현안을 어느 한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 환경, 무역 등 세계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국가들의 협의체 및 이들의 활동을 일컫음.
- G20 정상회의는 세계이슈 관련 협의체들의 활동을 총괄하는 최상위 포럼(the premier forum)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전



- 그간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체제로서 G7/8, G13, G14, G20 중 어느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G20를 핵심적인 포럼으로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논의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와 G20 정상회의의 역할

- G20 정상회의는 그간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세계금융위기 관련 G20 정상회의 주요 결정 사항

- 세계 각국이 동시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는 등 거시경제 정책 공조
- IMF ·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내에서 우리나라 등 신흥국가의 지분을 확대하는 등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추진
- 세계 경제위기속에서 각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합의/감독

- 세계경제가 1930년대의 대공황 시대와 달리 빠른 회복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은 G20를 중심으로 한 긴밀한 국제공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G20 정상회의의 제도화

- 지난 3차례의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모임이었습니다.
- 그러나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 뿐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의 출구전략 논의는 물론 금융, 무역, 환경문제 등 각종 글로벌 의제를 G20 국가들이 다루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번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한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 의미

한국 G20 정상회의의 의미

- 한국 G20 정상회의는 아시아와 개도국 지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G20 정상회의일 뿐 아니라,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G20 정상회의가 제도화된 이후 최초의 정상회의입니다.
- G20 정상회의는 APEC 정상회의보다 큰 규모로서 모든 참여국들의 정상들이 직접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정상회의입니다.
 - － 상당수의 정상회의는 1회성으로 개최되며 실제로 모든 정상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는 많지 않은데, 그간 APEC 정상회의가 최대의 정상회의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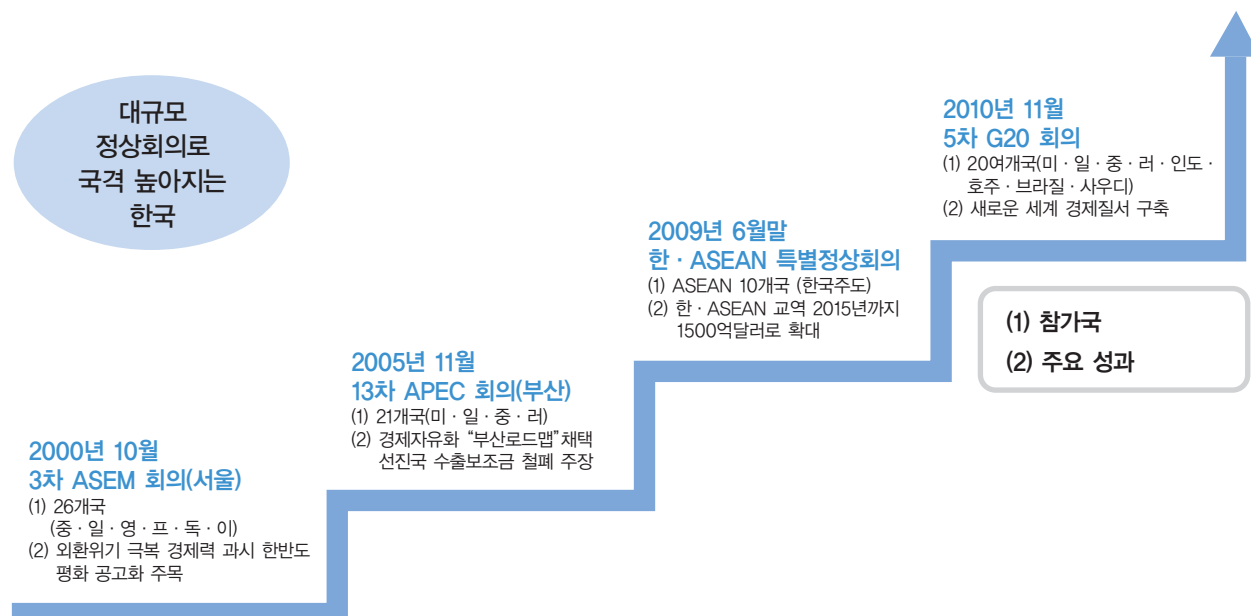
국제사회가 G20의 한국 개최를 지지한 이유

- 우리나라가 G20 회원국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유치국으로 선정된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정상이 보여준 리더십을 세계가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Financial Times, Wall Street Journal 등에 세계 경제위기의 극복 방향을 제시하면서 G20의 역할과 미래비전을 구체화 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 그간, 우리나라는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08.11.15) 이후 G20 의장단(troika)의 일원으로서 의제 선정과 정상선언문 작성 과정에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으며, G20 정상들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 －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 저지(standstill)를 제안하여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업적으로 인정받음
 - － 올해 4월 런던의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1990년대 후반 우리의 외환위기 극복사례를 참고한 부실금융처리 방안을 제시하였고, IMF · World Bank의 재원을 확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
 - － 또한, 금번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도 G20의 제도화, 거시경제 공조 지속 및 출구전략의 공조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IMF 개혁, 최빈개도국 지원 강화, 기후변화 공동대처 등을 역설하여 공동성명에 반영

- 우리나라가 내년에 G20 의장직을 수임하게 된 것은 핵심적인 세계경제 협의체에서 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합의문에 반영함으로써, 국제경제 질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세계 속의 한국의 역할

- 2011년부터는 G20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지금까지 위기대응의 차원에서 개최된 모인 수시적 회의의 성격에서 정례적 회의로 제도화시킨 것은 당면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됩니다.
- 한국은 이제 세계경제의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경제질서를 논의하고자 G20 체제가 공식적인 거버넌스 체제로 출범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의장국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새롭게 제도화되는 G20가 더욱 내실있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제가 되도록 적극 기여하는 한편, 내년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내년 G20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II. 유엔에서의 주도적 역할



1.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와 조정 역할

-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정상회의 원탁회의(9.22)를 호주 총리와 함께 공동 주재하였습니다.
-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제도로서 개도국의 자율적인 온실가스감축 등록부(NAMA registry)를 기후변화 사무국에 설치할 것을 제안
 - 우리의 제안에 대한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까지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연내에 발표할 예정임을 공개
 - 이를 통해 09. 12 코펜하겐에서의 기후변화협상 합의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한 녹색성장 전략 제시

-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의 국가비전이자 발전전략으로서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환경과 경제발전의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와 산업구조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양식 자체를 미래지향적으로 변화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녹색 분야에 매년 GDP의 2% 정도를 투입 예정(유엔 권고량의 두배)

- 지난 7월 이태리 G8 정상회의시 개최된 확대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전환기술 선도국가로 지정된 바 있는 스마트 그리드 분야 등 녹색기술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임을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 이러한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국가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담당코자 하는 의지 피력

- 또한 물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지구적 대응책으로서 물 관리 국제협력 체제의 구축을 제안 하였습니다.

– 청계천 복원에 이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등 우리의 성공적 경험사례를 소개하고 하천의 생태계 복원 및 홍수 조절을 위한 근본책 마련을 제안

Ⅲ. 북핵문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제안

1.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의 내용과 배경

북핵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제의 내용

-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미 외교협회(CFR) · 아시아 소사이어티(A/S) · 코리아 소사이어티(K/S) 초청 간담회(9.21) 연설 및 유엔 총회 연설(9.23)을 통해 제의하였습니다.

대통령 연설 요지

- 타협과 파행,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온 과거의 패턴에서 탈피하여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적 접근법 필요
-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 폐기와 동시에 북한에 대해 확실한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
- 북핵 폐기의 중착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토대로 5자간 협의를 통해 구체 행동 방안 마련 추진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제의 배경

- 북핵 프로그램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 · 단계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타협과 파행,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온 과거 북핵 협상 과정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제네바 합의는 막대한 경수로 건설 비용과 중유만 소진한 채 폐기
- 9. 19 합의(2005)의 비핵화 원칙도 북한의 2차례 핵실험과 후속 합의 이행 실패로 실효성 상실
- 2. 13 합의(2007)를 통한 동결-불능화-폐기의 단계적 협상은 5자의 지원(중유 75만톤 상당, 테러지원국 해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시설 복구로 사실상 파기(5자의 지원은 비가역적인 반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가역적이라는 점을 입증)

-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 통합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Grand Bargain은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새로운 평화구상’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며,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을 기본으로 하여 6자회담 참가 5개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임

- 이러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지난 6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협의하고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과 그간의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다른 것?

- 그간 한미 간 및 5자 간 협의해 온 포괄적 접근구상 또는 패키지 딜과 같은 맥락
- 다만, “패키지”라는 표현이 북한에 대한 혜택을 강조하는 어감이 있는 반면, Grand Bargain은 상호 주고 받는다는데 강조점이 있음.

2.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제의가 갖는 전략적 의미

- 북한의 비가역적 핵 폐기를 확실히 보장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이의 실제 이행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동시에 실시하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입니다.
 - 8. 15 경축사에서 제시한 새로운 평화구상의 연장선상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향점 제시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구상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북핵 문제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해결방식을 기본으로 5자가 한 목소리(one voice)로 북한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핵 포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과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북핵 협상 과정에서 관련국 간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3. 향후 추진 계획

- 대화와 압박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 대화와 함께 안보리 결의 이행 지속 등을 통한 압박을 병행하는 등 대북 정책 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향후 협상 과정에서의 대북 지렛대 제고

-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에는 핵물질과 핵무기까지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포기 결정에 대해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핵심적 지원 사항(안전보장과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할 것입니다.

– 단, 구체 요소는 추후 5자 간 계속 협의 예정

- 동 개념에 대해 미국 등 관련국과 큰 틀에서 협의하고 깊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구체사항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미 국무부 대변인은 9. 23(수) 정레브리핑 시 북핵 문제 진전 방향에 대해 5자 간 깊고 폭넓은 공감대(very broad & deep consensus)가 형성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Steinberg 국무부 부장관은 방한 기자회견(9. 30) 시 그랜드 바겐 구상과 포괄적 패키지 방안은 동일하며, 뭐라고 부르던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데 한·미 간 전혀 이견이 없다고 언급

- 북한이 일단 언론을 통해 거부 의사를 보였으나, 일괄타결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 5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북한을 계속 설득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봄.

당부의 말씀

세계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합니다.

- ◆이제는 G20 참여국이 아닌 의장으로서 리더십과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 회원국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선정하여 향후 G20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 ◆이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세계 선도국가에 부합한 사고방식과 제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세계의 보다 나은 미래를 앞서 열어나가겠다는 주인의식
 -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발전하자는 책임감과 사명감
 - 세계 수준의 국가제도와 시민의식 고양